Global Business Report 10-003
2010. 2. 26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대일 투자진출 현황 / 5

5 1. 대일 투자진출 동향
9 2. 일본의 M&A 시장동향
11 3.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 현황

Ⅱ. 대일 투자 여건 / 14

14 1. 일본의 최근 투자유치 지원정책
16 2. 지역별 진출여건

Ⅲ. 대일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 24

24 1. 투자진출 유망분야
29 2. 투자진출 전략

Ⅳ. 대일 투자진출 사례 / 37

37 1. 대일 투자진출 성공사례
47 2. 대일 투자진출 실패사례

Ⅴ. 부록 / 49

49 1. 대일 투자 지원기관
50 2. 지역별 진출유망 품목
57 3. 일본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요 약

□ 대일 투자진출 동향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는 2008년 245억 불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이중 M&A 투자가 3년 연속 증가해 2008년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중 88.6%를 기록함

○ 2008년 한국은 2억 7900만불을 투자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폴 다음으로 일본에 투자

○ 전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는 금융·보험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기업의 대일투자는 IT 관련(컨텐츠, 게임 등) 투자가 가장 많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장비 제조업이 선두를 차지(한류 붐을 활용한 식음료점의 FC 전개도 활발)

□ 대일 투자 여건

○ 일본 정부는 최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일 직접투자 가속 프로그램 △ 대일직접투자 등의 신고·보고절차 개선 △ 회사채 이자소득세 한시적 폐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칸토, 칸사이, 츄부, 큐슈 등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산업발전 및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자지체들도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창업/판로개척, 자금조달, 인재육성 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일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동차부품) 최근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들은 세계 최첨단의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친환경, 텔레매틱스, ASVs 등 분야에서의 급속한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기업과의 협업 및 부품조달을 확대중

○ (온라인·TV 홈쇼핑) 최근 일본 유통산업의 새로운 트랜드인 온라인 및 TV 홈쇼핑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 기능성 화장품, 건강식품, 조명용 LED가 유망 품목으로 분석됨

○ (문화·디지털콘텐츠) 일본의 문화/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14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해 1,255억 200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만화, 온라인게임, 지식정보콘텐츠 분야에서는 한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음

○ (IT 분야) 일본의 IT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이러닝, 인터넷/네트워크 관련 솔루션은 우리 기업들이 다수의 실적 및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신시장·틈새시장) 일본은 1억3000만명의 소비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 비즈니스, 육아(용품) 등 다양한 틈새품목이 자리잡고 있음

□ 대일 투자진출 전략

○ (제휴협력) 현지 기업과의 제휴협력은 폐쇄적인 일본시장 조기진출을 위한 주요방안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가 호전되고 있어 일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진출, 투자기술협력 등 제휴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지화) 일본 현지 진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단기 성과위주 보다는 장기적인 신뢰관계(Long term relationship)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진출 전략 필요

○ (파트너링) 자동차, IT 부품 분야에서는 제품개발 단계부터 협력관계를 형성, 일본 글로벌기업의 Supply Chain 업스트림 단계부터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관계(Global Partnership: GP)' 구축 필요

○ (M&A) 일본기업 M&A를 통한 일본시장 진출은 피인수기업의 기술습득과 유통망 활용 등 초기 진입비용 및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진출방안이며,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족문제를 M&A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일 투자진출 성공사례

기업명	품목	주요내용
재영솔루텍	플라스틱 사출금형, IT 부품	일본 기업을 M&A하여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조기에 습득,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의 자동차, IT 대기업에 납품
피에스텍	전기자동차용 충전 시스템,	기존 거래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제휴협력 관계를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성과 확보
D사	초경량 세라믹 브레이크	세계적 수준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및 1차 벤더와 Supply Chain 파트너링 관계 강화
더페이스샵	기능성 화장품	일본내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일본 소매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TV 홈쇼핑 채널에 진출하여 매출 확대 성과
NHN Japan	온라인 게임 등	제품개발, 마케팅 등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일본 온라인 포털·게임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
KY Japan	가라오케 기기	일본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초기 단계인 콘텐츠 개발부터 협력하는 등 공급기업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제작, 납품
인피니트 헬스케어	의료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	국제 공인된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대기업을 통한 다수의 유통채널을 구축, 시장점유율 조기 제고
엔하이테크	LED 조명	일본 유력 바이어와 제휴, 공동시장개척을 통하여 일본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로등 교체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투자유치를 통하여 공장증설에 필요한 자금 및 부지확보, 증가하는 수주에 대응할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됨
아라기술	인터넷 트래픽 관리 솔루션	보통신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 인력(자문위원)을 활용한 일본 정부, 대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트레픽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이동 Japan	막걸리	일본의 복잡한 주류시장 유통구조를 따르지 않고 직접 막걸리를 소비하는 소매점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주류업계로서는 특이하게 건강과 미용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

Ⅰ. 대일 투자진출 현황

1. 대일 투자진출 동향

□ 형태별 대일투자의 특징

○ 2006년~2008년 3년간 대일투자 건수는 517건이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43.6% 감소한 124건을 기록

○ 투자형태별로 살펴보면, M&A 투자가 3년 연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일본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중 88.6%를 기록

- 일본기업에 대한 M&A는 2006년의 50.2%에서 2008년의 86.5%로 대폭증가

- 외국기업 일본법인에 대한 M&A 건수는 12.9%에서 2.1%로 감소

○ 반면 그린필트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1/3 이하 수준으로 감소

〈대일 투자 건수 내역(2006년~2008년)〉

(단위 : 건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M&A투자	127	173	85	385
對일본기업	101	169	83	353
對외국기업 일본법인	26	4	2	32
그린필드 투자	74	47	11	132
합계	201	220	96	517

자료원 :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 국가별 대일투자진출 동향

○ **미국과 유럽이 주요 대일투자국**

- 2008년 일본 대내투자에서 미국은 120억 500만 불로 가장 규모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서유럽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48억 6100만 불을 투자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폴이 가장 활발한 투자를 실시함

- 2008년 한국은 2억 7900만불을 투자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일본에 투자

○ 2009년(1~9월)에는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부분 국가의 대일 투자금액이 줄었으나 유럽 일부지역, 한국, 대만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일본 대내직접투자(국제수지 베이스, 네트, 플로우)〉

(단위 : 100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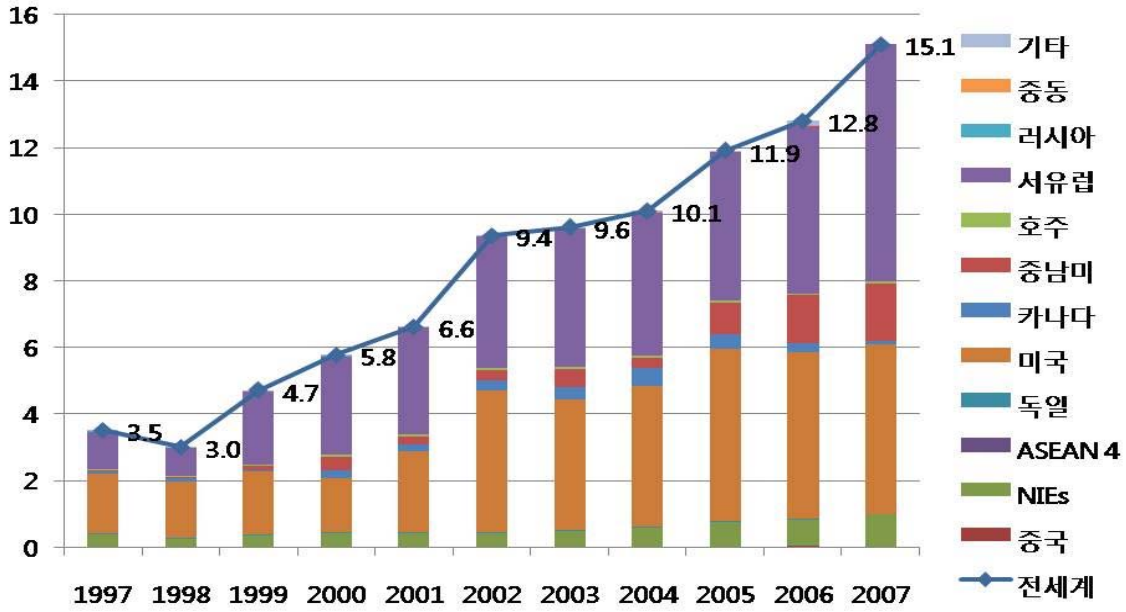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증가율	2009 (1~9월)	증가율 (속보치)
아시아	△852	1,605	3,381	110.7	1,352	△53.3
한국	108	221	279	26.5	277	12.2
중국	12	15	37	155.4	△140	n.a.
대만	110	36	66	80.9	56	42.0
싱가폴	1,062	1,282	2,716	111.9	618	△75.6
북미	△2,666	12,709	12,005	△5.5	1,980	△66.0
미국	105	13,270	11,792	△11.1	2,047	△63.5
중남미	566	2,831	4,020	42.0	279	△92.8
대양주	36	215	258	20.2	4	△93.4
서유럽	△3,938	4,785	4,861	1.6	6,461	18.0
동유럽	△4	1	5	562.2	1	△87.0
중동	△1	3	△2	n.a.	13	n.a.
아프리카	63	33	21	△36.6	47	897.3
전세계	△6,789	22,181	24,550	10.7	10,137	△44.2
참고						
아세안	1,063	1,283	2,740	113.6	831	△67.5
EU	△4,274	642	2,943	358.4	6,405	80.4

참고 : 2006년부터 일본 대내직접투자 집계방식이 신고금액에서 국제수지방식으로 바뀌어 '06년 이전 데이터와는 비교가 불가능

자료원 : 일본 재무성, JETRO

〈일본 대내직접투자잔고 국별/지역별 추이〉

(단위 : 조엔)



자료원 : 내각부 통상백서(2008)

□ 업종별 특징

○ **2008년 기준 외국기업의 대일투자는 금융, 보험업에 집중**

- 비제조업이 222억 8900만 불로 전체의 90.8%를 차지

  ※ 금융 보험업이 198억 2300만불(80.7%), 도소매업이 11억 6000만불(4.7%)을 각각 기록

- 제조업은 22억 6100만 불로 전체의 9.2%에 불과했으며,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인 일반기계(7억 2100만불), 전기기기(6억 4200만불), 석유(3억불)가 상위를 차지

○ 2009년(1~9월) 대일투자는 비제조업 분야가 큰 폭 감소

- 비제조업 분야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54.9% 감소했으며, 특히 도소매,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의 낙폭이 큼

- 제조업 투자는 37.4% 증가했으며, 비교우위를 갖는 철강, 일반기기, 전기기계, 정밀기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위를 차지

〈대일 투자 업종별 분류표(국제수지베이스, 네트, 플로우)〉

(단위 : 100만불, %)

구분	2007	2008	증가율	2009 (1~9월)	증가율 (속보치)
제조업	1,381	2,261	63.8	2,886	37.4
식료품	365	△86	n.a.	331	n.a.
섬유	109	△3	n.a.	△5	n.a.
목재·펄프	3	△5	n.a.	△1	n.a.
화학·의약	△1,010	245	n.a.	△58	n.a.
석유	935	300	△67.9	△4	n.a.
고무·피혁	35	4	△89.6	5	165.4
유리·토석	663	212	△68.0	△25	n.a.
철·비철·금속	230	124	△46.1	277	486.0
일반기계기구	△22	721	n.a.	129	△7.7
전기기계기구	△391	642	n.a.	1,659	471.1
운송기계기구	331	△55	n.a.	285	△35.1
정밀기계기구	20	113	454.4	80	8.5
비제조업	20,800	22,289	7.2	7,251	△54.9
농·임업	41	1	△96.4	△2	n.a.
어·수산업	△33	△2	n.a.	1	n.a.
광업	.	.	n.a.	△1	n.a.
건설업	19	△60	n.a.	17	n.a.
운송업	△288	43	n.a.	△119	n.a.
통신업	△633	△1,028	n.a.	347	96.0
도매·소매업	1,660	1,160	△30.1	1,143	△44.9
금융·보험업	17,661	19,823	12.2	5,324	△56.8
부동산업	1,413	581	△58.9	70	△82.9
서비스업	295	473	60.2	365	132.7
합계	22,181	24,550	10.7	10,137	△44.2

자료원 : 일본 재무성, JETRO

2. 일본의 M&A 시장동향

□ 최근 일본기업의 M&A 동향

○ 일본기업의 M&A는 1996년부터 급증하여 2005년까지 약 10년간 5배 이상 증가, 2004년 2000건을 넘어섰고, 금액이 밝혀진 1250건의 M&A 금액만 9조엔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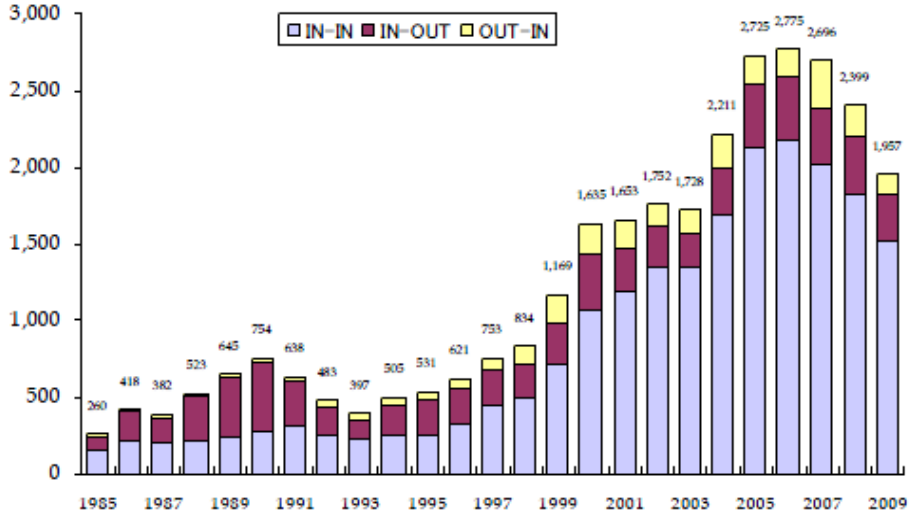
- 일본에서 M&A가 급증한 것은 1996년 하시모토 내각에 의한 대규모 금융 제도개혁으로 은행에 의한 간접금융에서 시장중심의 직접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대기업들이 경영통합 등으로 M&A를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1년 이후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진후에도 일본 대기업간의 사업재구축을 위한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도 6조 5천억엔 이상으로 증가하여 과거 최고치를 기록

□ 일본의 M&A 시장 현황

○ 2009년 일본의 M&A 건수는 2008년 리만쇼크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8% 감소한 1957건을 기록

〈일본 M&A 건수 추이〉



자료원 : RECOF NEWS LETTER '10.2.15

□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현황

○ 1988~2004년 일본기업 관련 M&A 총 16,832건중 외국기업이 재일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건은 662건

-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는 제조업중심에서 **펀드, 부동산, 리조트 관련 기업중심으로 이행**되는 것이 특징

○ 미국, 유럽기업은 주로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취득 등을 통한 일본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아시아기업들은 주로 비교우위의 경영자원 취득을 목적으로 M&A를 추진

○ 중국의 대일투자는 2005년말 잔고기준 12억엔으로 미미하지만 중국기업의 자금력 축적과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최근 급증

- 중국기업의 대일투자 특징은 경영파탄에 빠진 일본의 중견제조업을 저비용에 인수한 후 일본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여 중국에서의 생산성 증대와 해외시장에서의 판로강화를 통하여 재건을 도모한다는 전략임

□ 일본기업의 후계자 부족문제와 M&A에 의한 해결

○ 최근 일본에서는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M&A에 의한 사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06년 일본에서 폐업한 기업 29만개 중 약 7만개사는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였고, 이로 인한 고용상실은 약 20~30만명으로 추산됨(중소기업백서 2006년판)

○ 일본정부와 재계는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인수자나 후계자를 중개하는 매칭서포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M&A 중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오사카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M&A 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과 M&A 중개기관을 연결시켜주고 있음

3. 한국의 대일투자 동향

□ IT · 서비스 분야 중심 진출, 최근 감소세

○ 한국의 대일 투자진출은 2007년 엔화약세 · 원화강세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나 2008년도 1분기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

○ 2008년도 대일 투자 건수는 548건, 투자 금액은 4억 2,635만 불로 전년대비 투자건수는 18%, 금액은 18.7% 감소하였으나 2009년 금융 · 보험업 등의 투자증가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도 대일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급격한 원화약세 · 엔화강세에 기인

○ 대일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일본 진출에 활발하다는 특색이 있음

- 전반적으로 **IT 관련(컨텐츠, 게임 등) 투자**가 가장 많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장비 제조업**이 선두를 차지함. 이밖에 한류 붐을 활용한 **식음료점의 FC 전개**가 활발함

〈연도별 대일 투자 현황〉

(단위 : 1,000불)

연도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1968~1999	554	613,011	564	488,217
2000	235	142,310	233	94,509
2001	216	94,692	214	88,933
2002	163	97,158	168	81,717
2003	112	52,028	110	51,528
2004	195	320,312	208	289,007
2005	258	212,586	283	152,851
2006	391	289,591	399	246,390
2007	584	809,175	668	524,870
2008	463	644,660	548	426,356
2009.6월	354	637,622	398	339,02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 및 특징

○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일본 진출에 활발한 것이 특징으로 **IT 관련 (콘텐츠, 게임 등) 투자**가 가장 많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장비 제조업**이 선두를 차지

- 2007~8년 특이점은 골프장 운영업 투자 건수가 36건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대일 투자 건수 1위를 차지했으며, 한류 붐을 활용한 **식음료점의 프랜차이즈 전개**가 활발

- 2009년 상반기에는 세계경기 하락으로 인해 2008년도 하반기에 이어 투자건수 투자금액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금융 및 보험업(2억 1,511만불)의 대일진출이 활발

〈일본진출 주요 한국 식료품 프랜차이즈 현황〉

상호명	운영상황
봉추찜닭(鳳雛チムタク)	도쿄 시부야 1개 점포 운영
(주)황가네에프에스	도쿄 신주쿠 1개 점포
LA북창동순두부(BSD)	나고야 3개 점포 운영
북창동순두부(BCD)	도쿄 신주쿠 1개 점포 운영
하이야쿠(はいやく)	일본업체로 전주비빔밥 전문점 '고궁'과 기술제휴, 로얄티 지불
3초 삽 삼겹살	(주)가온프랜차이즈가 재일한인기업(주)거산과 제휴
본죽	도쿄 아사카사 1개 점포 운영
목장원	브랜드와 음식조리기술 제공(1.5% 로얄티), 교토에 점포 개설
홍초불닭	도쿄 시부야 등 2개 점포 운영
이바돈감자탕	도쿄 신주쿠 등 직영 2개점, 프랜차이즈 1개점 운영
놀부네	도쿄 주요 명소에 12개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점 운영
BBQ치킨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5개점 직영점운영

자료원 : 각사 IR자료

○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 M&A는 투자형태상 동업종 기업간 지분참여 사례가 많음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 M&A 동향〉

인수기업	대상기업	형태	공표금액 (억엔)	공표일
삼성SDI	NEC	영업양수	8,500	2004
NHN 재팬	멀티담 (비상장)	매수	7.6	2007.01.01
동국제강	JFE홀딩스 (동증1부)	지분참가 (주식상호보유)	100	2006.09.25
포스코	신일본제철 (동증1부)	출자 확대 (주식상호보유)	550	2006.10.21
JS리조트	서비리조트개발 (비상장)	사업양도	10	2006.09.23
한진해운	가와사키기선 (동증1부)	자본 참가 (주식상호보유)	70	2006.10.17
대신증권	닛코코디알증권 (동증1부)	자본 참가 (주식상호보유)	64	2006.10.17
SK	신일본석유 (동증1부)	자본 참가 (주식상호보유)	120	2007.01.23
엠엔에프씨	일본정밀 (자스닥)	매수	-	2007.8
재영솔루텍	교세라 금형부문	사업양수	-	2007.10
삼성물산	묘도메탈	매수	-	2008.1
BOFi	디지털어드벤처 (헤라클레스상장)	매수	-	2009.5

자료원 : 「기술확보를 위한 일본기업 M&A 전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 11

II. 대일 투자 여건

1. 일본의 최근 투자유치 지원정책

□ 대일 직접투자 가속 프로그램

○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외국기업에 있어 매력적인 진출처,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대일 직접투자 가속 프로그램"을 개정('08.12월)

〈대일 직접투자 가속 프로그램 개정내용 개요〉

구분	내용
지역 활성화	· 복수의 지차체에 의한 광역 연계 외자유치활동 지원 · 기존 진출 외국기업의 재투자, 2차 투자 촉진 · 2010년까지 1,000만명의 외국인 방일 유치를 실현
투자환경 정비	· 펀드의 효과적 활용 · M&A를 통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사업계승, 재생, 해외사업전개에 투자할 만한 외자 유치 · 해외인재의 수입확대(아시아人材資金構想의 실시) · 의료기기의 심사신속화의 액션프로그램의 실행 · 항공자유화, 하네다공항의 국제화 및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시간화 촉진 · 법인실효세율 재검토 · 외자규제의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 매수공방책의 존재에 대한 보고서의 주지철저
적극적 홍보	· 수장에 의한 톱세일즈, 대일투자세미나의 전개

□ 대일직접투자 등의 신고, 보고절차 개선

○ 경제산업성은 외국투자자 등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대일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내 직접 투자 등에 관한 령, 지침 등을 개정('09.6월)

○ 개선사항

- **(투자자문회사를 통한 대일 직접투자 등의 신고, 보고 절차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자문회사를 통해서 실시한 투자를 외환법상의 대일직접투자 등으로 간주, 해당 투자 자문회사가 신고, 보고의 의무자가 되도록 함

- **(신고 가능 기간 연장)** 대일직접투자시 외환법상의 사전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실행·처리보고의 간소화, 사후보고의 일부 폐지)** 외국인투자자의 외환법상의 보고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행·처리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회사의 사업목적변경의 동의에 관한보고,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보고 등을 폐지

- **(사후보고 기한 연장)** 종래 대일직접투자등을 행한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일직접투자 등을 행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기간 연장

□ 회사채 이자소득세 한시적 폐지

○ 내각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과해온 15% 가량의 회사채 이자소득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10.1월)

○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회사채 보유율이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이유가 회사채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른 것으로 해석, 한시적 감세로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

○ 해외 투자자 대상 회사채 이자소득세 면제 방안을 오는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행 예정

2. 지역별 진출여건

□ 칸토(關東)

○ 개요

- 도쿄가 위치한 칸토지역은 일본경제의 중추지역으로 기술개발의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서, 유명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해외기업이 일본진출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

- 일본 전체 총생산의 43.8%, 제조품 출하액의 38.8%, 사업소 수 의 38.2%, 화물 입출입량의 34.2%, 정보서비스업 매출액의 77.1%, 연구자 수의 61.1%를 차지

○ 특징

- 칸토경제산업국에서는 중점산업분야, 산업집적정도, 대학 등의 정책자원 상황을 고려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바이오벤처', '정보벤처 육성'을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다양한 자원을 투입

-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칸토 전역을 클러스터 대상으로 재정의, 다양한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

  ※ '수도권 서부지역(TAMA)', '중앙자동차도로연선지역', '토카츠(東葛)지역, 가와구치(川口)지역', '상엔난신(三遠南信)지역', '수도권북부지역'의 5개 지역에 자원 집중 투입

〈칸토지역 주요 산업 클러스터〉

□ TAMA 클러스터

○ 전기기계, 운송용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기, 플라스틱제품, 전자기기부품, 금속가공, 공작기계 관련 제조업체 약 300개사로 구성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전기기계 제조업계의 경우 매출규모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함

□ 바이오벤처 클러스터

○ 국내 관련 기업의 60% 이상, 연구기관 및 대학, 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있으며, △거점간 제휴 △연구개발 △창업/판로개척 등을 지원

□ 정보벤처 육성 클러스터

○ 소프트웨어 관련 IT산업의 약 40%, 콘텐츠 관련 산업의 약 80%가 집적하고 있으며, 321개사, 2개 대학, 5개 지자체가 참여

○ 추진조직인 수도권정보벤처포럼에서는 IT와 콘텐츠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여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따른 전략적 지원을 실시

○ 주요 지자체 : 요코하마시

- 지역내 지자체 중 요코하마시가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원제도에서 소규모 임차료 조성까지 진출형태에 따른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음

- 주요 지원사항
  ・전문가 상담, 초기 정착 시설 제공, 비즈니스 매칭 알선 등 통합진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세금을 50% 수준으로 감면
  ・중점 교류국가(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 타이, 인도) 기업으로서 시가 정하는 중점산업(IT 바이오 등)에 해당하며 초기 투자진출의 경우, 관련 경비의 일부(임차료 등 6개월분, 한도액 300만엔) 지원

□ 칸사이(關西)

○ 개요

- 칸사이 지역의 GDP는 일본 전체의 20%에 상당하는 7,230억 불 규모로서 호주 전체(7,820억불)에 상당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 기초 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 생활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

○ 특징

- 킨키(近畿)경제산업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한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
  ※ 킨키 바이오관련 산업 프로젝트, 제조기업 지원 프로젝트, 정보계 클러스터 진흥 프로젝트, 킨키 에너지 및 환경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

- 프로젝트 대상 산업의 육성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창업/판로개척, 자금조달, 인재육성 등의 지원책을 시행

〈칸사이지역 투자유치 중점산업〉

지역	산업
시가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바이오관련 산업(의약품, 의료용 기계/기구)
효고현	미세가공, 조립산업, 반도체, 물류 및 부동산업
오사카부	의약품, 의료용 기계 및 기구, 바이오
나라현	전자부품, 디바이스
오사카시	정밀생산기술(로봇테크놀로지 관련 업종)
사카이시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디바이스
코베시	의료관련, 바이오산업 (의료, 건강, 복지)

○ 주요 지자체 : 오사카부

- 오사카부에 진출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150억 엔의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출 지원 서비스를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O-BIC)가 원스톱으로 제공

〈오사카부 진출기업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및 감세조치	・신규사업 보조금 신규 산업거점 등에서 신규 사업을 전개하는 입지기업에게 보조금 교부 ・첨단산업 보조금 대상지역에서 첨단산업분야 입지 기업에 150억엔을 한도로 보조 ・첨단연구소 보조금 연구개발시설 신규 증설 보조 ・부내 중소기업 등 투자촉진보조금 지정지역내 공장 및 연구개발시설의 신규 증설 보조 ・외자계기업 오사카 진출 촉진 보조금 JETRO IBSC 오사카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회사를 설립한 외자계 기업 등에 대해 100만엔을 한도로 보조 ・산업집적 촉진세제(부동산 취득세 경감) 산업집적 촉진지역내 토지 및 가옥 취득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를 2분의 1로 경감
융자제도	・산업입지촉진융자 오사카부내의 산업거점에 입지시 저리융자 제공
기타 조성제도	・임대료 감액제도 첨단산업 입지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경감

□ 츄부(中部)

○ 개요

- 츄부지역은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로서, 과거 30년간 제조품 출하액에 있어 1위 자리를 고수

-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항공기, 전기부품, 로보트, 신소재 등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유력기업들의 본사 및 제조거점이 다수 위치

○ 특징

- 파인세라믹, 항공우주, 일렉트로닉스 산업의 중추지역으로서 일본 첨단산업의 메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부품에서는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

- 타분야 기업간, 대학·연구기관간 새로운 매칭 네트워크 형성 및 창업 벤처의 촉진을 통한 신기술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다수 추진
  ※ 모노즈쿠리 창출 프로젝트, 바이오 모노즈쿠리 창출 프로젝트 등

○ 주요 지자체 : 아이치현

- 외국 기업이 새로이 관할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

〈아이치현 진출기업 지원제도〉

항목	사업소 개설준비 경비	
보조대상	사업소	관할지역 내에 새로이 진출하기 위해 사업소의 개설준비를 준비중인 외국기업
	사무소	관할지역 내에 새로이 진출, 사무소 등을 임차하여 개설예정인 외국기업
대상분야	사업소	특별한 제한 없음
	사무소	6대 성장분야(건강장수, 환경·에너지, 생활의 질 향상, 바이오, 나노테크, IT)
요건	사업소	없음
	사무소	사무실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상시고용자 10인 이상
보조대상 경비	사업소	시장적합화 조사비, 통역비, 번역비(2차 진출은 제외), 인허가비, 등기비용, 인재모집경비, 그 외의 지자체장 승인 경비
	사무소	사무소 등 임차료 1년분
보조금	사업소	1/2
	사무소	1/2
한도액	사업소	1,500만엔(2차 진출의 경우에는 1,000만엔)
	사무소	3,000만엔

□ 큐슈(九州)

○ 개요

- 선박준공 실적과 IC 생산량에서 일본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생산거점

- 수산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도 발달해 있으나, 철강, 조선업 외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실리콘 아일랜드, 카 아일랜드로 불림

○ 특징

- 반도체, 환경리사이클링, 바이오 분야를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큐슈의 주요 산업〉

구분	주요산업	발전산업
후쿠오카	자동차, 식료품, 전기기계,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리사이클링, 로봇, 수소에너지, 나노기술
사가	식료품, 전기기기, 반도체 제조장치, 금속제품, 화학공업	물류, 수송용 기계기구
나가사키	조선, 일반기계, 전자부품, 수산업, 관광, 요업	환경・에너지관련, 복지・의료관련, 정보통신관련
쿠마모토	반도체, 조선, 이륜차, 식료품, 반도체 제조장치, 금속제품	반도체관련, 생명공학관련
오이타	전자부품, 철강, 화학, 반도체, 디지털카메라, 석유/석탄	전자부품, 자동차관련, 순환형환경, 식품
미야자키	식료품, 전자기기, 음료, 담배, 화학, 전자부품	식료품, 목재, 금속제품, 전자부품, 화학, 콜센터, 전기기계기구, 자동차부품
카고시마	식료품, 전자기계, 음료, 사료, 요업, 금속	반도체관련, 식료품 관련

○ 큐슈지역은 일본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외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채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세제나 채무보증 제도, 보조금, 융자제도 등을 운영

〈역내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제도〉

지자체	명칭	대상사업	한도액
후쿠오카현	기업입지촉진교부금	제조업	1.5~5억엔
		산업지원서비스업[1]	1.5억엔
사가현	기업입지보조금	공장, 시험연구시설, 리조트시설	3~5억엔
	소프트웨어업 등 입지촉진보조금	소프트웨어업, 콜센터	1억엔
나가사키현	입지기업 서포트보조금	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등[2]	11억엔
	공장등 입지 촉진보조금	상기 사업 외 기업입지 지원사업	5억엔
	IT 관련, 콜센터 보조금	IT 관련, 콜센터 사업	2.4억엔
쿠마모토현	기업입지촉진보조금	고도기술 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2.5~5억엔
		외국기업	1.5억엔
	소프트웨어산업 등 집적촉진조성금	소프트웨어업, 자연과학연구소	3천만엔
	과소지역 공업도입촉진 보조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자연과학연구소	3천만엔
오이타현	기업입지촉진보조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등	1~3억엔
	소프트웨어업 등 입지촉진 보조금	소프트웨어업 등	2천만엔
	대규모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등	10억엔
미야자키현	보조금[3]	일반제조업, 첨단업종, 민간연구소, 유통관련업, 정보서비스업, 콜센터	2~5억엔
카고시마현	기업입지촉진보조금	일반제조업, 유통관련업, 연구개발시설, 콜센터 등	0.5~10억엔
후쿠오카시	기업입지촉진보조금	지식집약형산업 등[4]	0.5~5억엔
	기업입지촉진교부금	일본최초진출 외국기업	300만엔
키타큐슈시	기업입지촉진보조금	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등[5]	10억엔
	국제물류특구기업 집적 특별조성금	상기업종+재활용산업시설 등 3개 업종	5억엔

1)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디자인업, 자연과학연구소 등
2) 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기계수리업, 산업용설비세정업, 기계설계업, 엔지니어링업, 물류관련업, 지사특별인정사업
3) 외국기업 추가우대조치 적용
4) 지식집약형산업, 건강의료복지 관련산업, 도시형 공업, 아시아 비즈니스, 물류관련업
5) 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경영컨설턴트업 등 18개 업종

III. 대일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1. 대일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동차 부품 : 친환경 및 텔레매틱스, ASVs 관련

○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들은 세계 최첨단의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과의 협업 및 부품조달을 확대중

○ 세부분야

- **(텔레매틱스)** 일본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도로가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함으로 인해 경로 안내 및 교통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2012년에 26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환경관련)**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는 2011년 6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전성관련)** 능동적 안전 기술 제품의 비용이 점차 효율화 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첨단안전차량(Advanced Safety Vehicles: ASVs)을 점차 확대, 관련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 ABS, TCS, 타이어압력감시시스템, 고휘도 브레이크, 측면 및 후면 장애물 경고시스템 등

〈자동차 부품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재영솔루텍	플라스틱 사출금형 IT 부품	일본 기업을 M&A하여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조기에 습득,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의 자동차, IT 대기업에 납품	M&A
피에스텍	전기자동차용 충전 시스템 등	기존 거래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제휴협력 관계를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성과 확보	제휴협력

□ 온라인·TV 홈쇼핑(소비재) : 기능성 화장품, 건강식품, 조명용 LED

○ 일본의 유통산업은 1991년의 약 700조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 GDP에서 3위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일본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일본 유통산업은 인수합병 등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TV 홈쇼핑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

〈일본의 시대별 주요 유통 채널〉

고도성장기 50~70년대	오일쇼크 이후 70~80년대	버블붕괴 이후 90년대	온라인 미디어 시대 현재
종합양판점	가전양판점, 편의점	대형 유통점	온라인, TV 홈쇼핑

○ 세부분야

- **(기능성 화장품)** 한류 붐 이후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 개선으로 한스킨의 BB크림, 더페이스샵 주름개선제 등의 한국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건강 식품)** 한국 특유의 강장식품 이미지와 중국산 식품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검은 마늘 등의 한국산 건강식품이일본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국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 **(조명용 LED)** 일본의 LED 제품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엔고원저 현상에 따른 대일 수출 증가가 예상됨

〈도소매/유통 분야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더페이스샵	화장품	일본내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일본 소매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TV 홈쇼핑 채널에 진출하여 매출 확대 성과	현지화

□ 문화/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만화, 온라인게임, 지식정보콘텐츠

○ 일본의 문화/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14년까지 연평균 2.1% 성장하여 1,255억 200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류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음

○ 세부분야

- **(디지털만화)** 출판만화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수익원으로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게임)**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2008년 8억 7,900만 불에서 2009년 9억 3,800만 불로 전년대비 6.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5.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전망

- **(지식정보콘텐츠)** 일본 이러닝 시장은 형성기를 지나 정착기에 접어든 기업 분야의 이러닝이 점차 발전하며 응용 분야로의 확산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DRM/CDN 등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시장도 빠른 성장 전망

〈일본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출판 (광고제외)	26,035	26,332	25,462	24,997	25,033	25,222	25,530	25,928	0.40%
만화	**3,230**	**3,311**	**3,140**	**3,062**	**3,078**	**3,106**	**3,134**	**3,173**	**0.20%**
음악	4,003	4,036	3,804	3,615	3,468	3,361	3,294	3,265	-3.00%
게임	**19,749**	**15,401**	**15,626**	**16,194**	**16,465**	**16,653**	**16,861**	**17,070**	**1.80%**
영화 (애니제외)	6,667	6,370	6,713	6,869	7,164	7,511	7,885	8,123	3.90%
애니메이션	2,502	2,897	2,683	2,713	2,808	2,937	3,088	3,158	3.30%
방송 (광고제외)	10,433	11,076	11,281	11,622	12,257	13,167	14,321	15,312	6.30%
광고	46,763	44,947	41,159	39,804	39,767	41,102	43,507	44,976	1.80%
캐릭터	1,133	1,213	1,191	1,178	1,154	1,130	1,105	1,081	-1.90%
지식정보	**2,160**	**2,302**	**2,283**	**2,444**	**2,617**	**2,749**	**3,049**	**3,416**	**8.40%**
합계	122,675	117,884	113,342	112,499	113,810	116,939	121,774	125,502	2.10%

자료원 : 「해외콘텐츠시장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

〈문화/디지털콘텐츠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NHN Japan	온라인 게임 등	제품개발, 마케팅 등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일본 온라인 포털·게임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	현지화

□ IT 분야 : 전자정부, e-Learning, 재택근무지원 솔루션

○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국내 총 생산액은 97.9조 엔으로 전체 산업분야 중 가장 큰 9.7%를 차지

- 정보통신 산업의 실질 국내 생산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29.0조엔으로 타 산업과 비교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9 ICT경제 분석에 관한 조사」, 총무성

○ 전자정부, 이러닝, 인터넷/네트워크 관련 솔루션은 우리 기업들이 다수의 실적 및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세부분야

- **(전자정부)** 2,300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e-Government시장은 정보화시스템 구축경험이 앞선 한국기업에게 중요한 기회요인
  · 일본의 지방정부(市町村)는 독립적 성격이 강하여 자체 정보화 예산과 의사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정보화)** 2011년 완전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에 맞추어 학교의 ICT 환경 정비사업과 e-learning 사업을 본격 추진 방침
  ·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개방형 학교시스템, 미래형 교실, 학습환경 구축, 학술통계시스템, 교육컨텐츠 등을 들 수 있음

- **(원격·재택근무 지원 솔루션)** 2005년부터 총무성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장려정책과 IT 기술 도입비용 감소에 따라 기존 PC를 원격근무 클라이언트화 하는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 추세
  · 원격근무 지원 솔루션 시장은 2008년~2013년간 연평균 27%를 기록하며 2013년에는 1,417억엔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예상

〈IT 분야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아라기술	인터넷 트래픽 관리 솔루션	정보통신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 인력(자문위원)을 활용한 일본 정부, 대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트레픽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현지화

□ 신시장/틈새시장

○ 일본은 1억3000만명의 소비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저가품에서 고가품까지 다양한 틈새품목이 자리잡고 있음

- 100엔 숍에 납품되는 생활용품부터 대당 수백만엔의 매립쓰레기 선별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일본시장에서 팔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가라오케 기계, PACS, 막걸리 등도 대일 수출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 민주당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 상품 및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중

- **이에 따라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 비즈니스, 육아(용품) 등에서 신규 틈새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신시장/틈새시장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KY Japan	가라오케 기계	일본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초기 단계인 콘텐츠 개발부터 협력하는 등 공급기업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제작, 납품	파트너링
인피니트 헬스케어	PACS	국제 공인된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대기업을 통한 다수의 유통채널을 구축, 시장점유율 조기 제고	현지화
이동 Japan	막걸리	일본의 복잡한 주류시장 유통구조를 따르지 않고 직접 막걸리를 소비하는 소매점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주류업계로서는 특이하게 건강과 미용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	현지화

2. 투자진출 전략

A. 일본기업과의 제휴협력을 통한 공동진출

□ 일본기업과의 제휴협력을 통한 진출의 이점

○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고비용 구조인 일본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출비용 및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고비용 구조 극복)** 기술개발에서 물류까지 전반적 고비용 구조인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거점 및 자원을 보유한 일본기업과의 제휴/자본협력이 효과적

- **(기술이전 실현)** 제휴협력을 통해 상대기업이 보유한 원천/생산 기술의 직간접적 이전을 추진,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실현

- **(시장진입속도 단축)** 제휴 전략을 통한 필요 경영 자원의 확보 및 학습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보다 빠른 신제품 개발 출시로 경쟁 우위 실현

□ 한일기업간 제휴협력 가능성 높아져

○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들도 내수부진, 엔화강세 등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외부조달을 확대하고 있어 제휴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한국제품의 품질과 납기가 크게 향상되고 있어 일본기업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일고 있는 한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일본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첨단제품 제조거점을 일본 국내에서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엔화강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생산거점 및 부품조달을 현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술, 제품, 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양국 기업간 제휴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지기업과의 제휴협력의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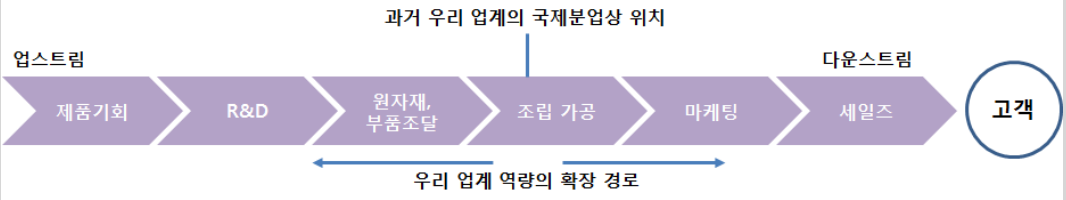
○ (가치사슬의 업·다운스트림으로 관련 다각화) 제휴협력을 통해 원자재, 부품, 모듈 등과 같은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판로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확장 실현 가능

○ (적극적 제휴협력을 통한 빠른 성장)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출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역량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스피드의 중요성이 높아짐

○ (동반 성장 추구) 기업의 독자적인 행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일본 현지기업과 네트워킹하여 조달할 수 있음

※ 동종업체 간뿐만 아니라 이(異)업종 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얻는 성장방식 실현 가능

<우리 업계 역량의 확장 경로>



자료원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 조환익(KOTRA 사장), 2009. 10

〈제휴협력 성공기업 대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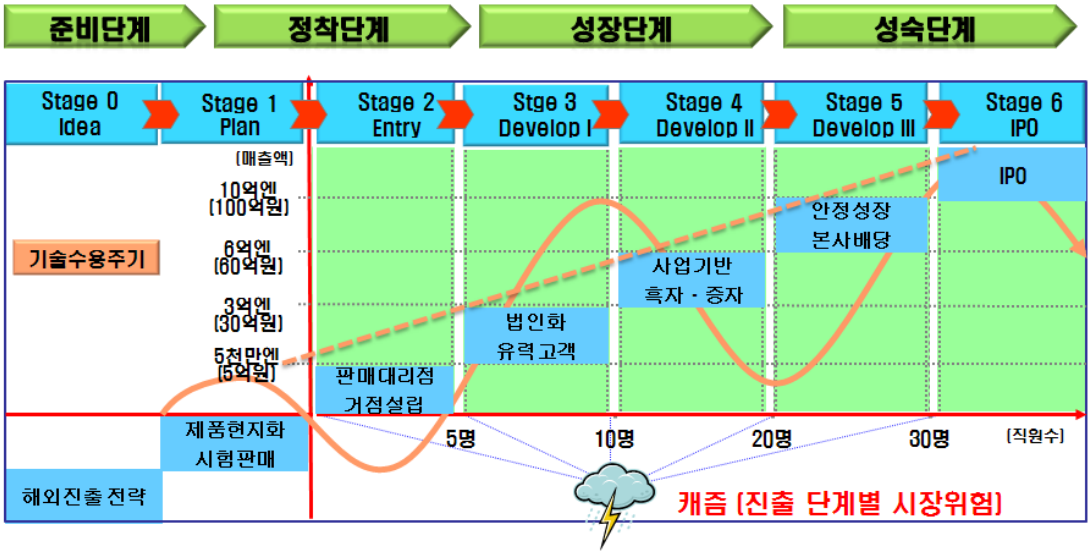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피에스텍	전기자동차용 충전 시스템 등	기존 거래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제휴협력 관계를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성과 확보	자동차 부품

B. 현지화

□ 단계별 성장지원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지진출

○ 일본시장은 단기 성과위주 보다는 장기적인 신뢰관계(Long term relationship)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진출 전략 필요

- 현지화 추진 기업은 준비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별 전략마련 필요



□ 도쿄 KBC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추진

진출단계	소요기간	기업의 주요 활동	지원 프로그램
준비단계	0~1년	의사결정, 해외진출전략 매뉴얼 현지화 등	시장정보 제공 진출전략 수립 지원
정착단계	2~4년	시험판매, 마켓채널 계약 비즈니스모델, 거점설립 영업체계	채널연계 활동(지사화, 상담회 등) 입주시설 및 물류센터 제공 검증 및 제품 전시환경 제공 경영컨설팅, 거점설립 지원
성장단계	5~10년	유력채널 발굴, 정상판매 거점의 현지법인화 유지보수체계, 손익분기점 달성	최종고객 직접 영업 활동 지원 분야별 성공사례 발굴 입주시설 및 물류센터 제공
성숙단계	10년이상	최종고객 직접영업, 안정성장 업무의 시스템화, IPO 준비	일본의 IPO 절차 소개 유망 VC 등 연계

□ KOTRA의 각 단계별 진출지원 체계

○ KOTRA 도쿄 KBC는 IT지원센터, 인큐베이션센터, 한국공동물류센터를 운영중이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현지 지사 역할, 물류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와 같은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 진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진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으로 중소기업의 이용을 권장함



〈현지화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NHN Japan	온라인 게임 등	제품개발, 마케팅 등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일본 온라인 포털·게임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	문화/ 디지털콘텐츠
인피니트 헬스케어	PACS	국제 공인된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대기업을 통한 다수의 유통채널을 구축, 시장점유율 조기 제고	신시장/ 틈새시장

C. 파트너링(한일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기술지상주의 일본기업, 범용화에 관심 높아져

○ 일본 제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부품을 채용한 High-end 제품을 판매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불황, 일본내수시장축소에 따라 일본기업은 두터운 소비계층을 겨냥한 중저가제품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

※ 아시아시장중산층(Volume Zone) 타겟, 중저가제품(Middle-end) 수출확대

○ 일본기업은 중저가 범용 부품을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갖게됨

- ex) 특정기능에 집중한 모바일 노트북제작(도시바, NEC '09년)

□ 일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대한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일본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부품소재 발굴에 주력함에 따라, 한국 기업과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은 반도체, 조선 등 세계일류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08년에는 GDP대비 R&D 투자비중이 세계 4위에 이르는 등 한국산 부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일본기업의 호평을 받고 있음

- 한국산 부품 바이어 만족도 조사 : 66.9점('06) → 82.4점('08)

○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일본기업의 범용부품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외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한일기업간의 부품공동개발 추진 등 협력 파트너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자부품/IT,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됨

분야	진출전략
전자부품/IT	○일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적극적으로 활용 - 부품소재 분야중 전자부품 일본바이어만족도 가장 높아(KOTRA,08.11) o 그린조달 환경 관련 인증 취득하여 신뢰성 향상해야
자동차 부품	○"세계최적조달정책(1엔이라도 싸면 국적불문하고 조달)"활용 ○AS, 클레임 대응을 위한 거점설치, 장기적인 공급체계 마련 - KOREA-JAPAN AUTO PARTS PLAZA 2010, 한일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 사업 등 개최예정(KOTRA)
기계부품	○(단기전략)기술력,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모듈부품 중심 진출 ○(장기전략)중국산과 차별화된 하이테크 기술제품 중심 진출

□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링 구축

○ 한일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 IT, 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의 기업일수록 제품개발단계부터 부품, 소재, 생산에서 노하우가 높은 기업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공동 R&D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상기 분야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일본 글로벌기업의 Supply Chain업스트림 단계부터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관계'로의 전환 필요

〈부품소재 업계 파트너링 현황 및 추진방향〉

현황	부품소재 산업위상	한국경제의 고용창출을 주도하며, 제조업 생산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경제 중심산업으로 매우 중요
	경쟁동향 (대외여건)	핵심부품 대일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 등으로 범용부품 Nut Cracker 현상 심화
추진방향		일본 기업과 제품 개발, R&D, 생산, 마케팅 등 사업 전분야에 대한 파트너링을 추진, 경쟁력 제고 및 미래 부품소재 시장 선점
KOTRA 추진사업		○Open Innovation 전시회 연계, 기업연결 프로그램 강화 -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도쿄한국부품산업전 ○일본 글로벌 기업 개별수요 대응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상시 발굴활동 추진 및 일본기업방문 파트너링 추진

〈파트너링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D사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세계적 수준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및 1차 벤더와 Supply Chain 파트너링 관계 강화	자동차 부품

D. M&A를 활용한 기술 및 시장 확보

□ M&A 진출의 장단점

○ 기업 인수·합병(M&A)은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피인수 기업의 거래선을 활용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합병에 따른 조직 부조화, 재무구조 악화 등과 같은 부작용도 있음

□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추진 목적

○ 미국 및 유럽 기업은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 취득 등 일본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기업들은 비교우위의 경영자원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중국기업들이 최근 일본기업이 지닌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흡수하여 중국에서의 생산성 증대와 해외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경영파탄에 빠진 일본의 중견 제조업체를 저비용에 인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한 M&A

○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창업 경영자의 세대교체 및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후계자 부족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M&A를 활용

- M&A에 저항감을 갖는 중소기업 경영자도 여전히 많지만 부득이한 사례가 많아 일본 정부도 관련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음

〈일본 중소기업의 M&A 목적〉

구분	후계자 부재	업적부진	이업종 추진	기타
비율	62.2%	13.4%	12.2%	4.2%

자료원 : 오사카 상공회의소

○ 일본 정부의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해 우리 기업 또는 투자회사가 참가하여 일본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M&A를 통한 일본진출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일본기업측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은 기술확보, 시장 개척 등에 도움이 되는 윈-윈 모델이 될 수 있음

- 일본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대상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하여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M&A 성공기업 대표사례〉

기업명	제품	내용	구분
재영솔루텍	플라스틱 사출금형 IT 부품	일본 기업을 M&A하여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조기에 습득,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의 자동차, IT 대기업에 납품	자동차 부품

IV. 대일 투자진출 사례

1. 대일 투자진출 성공사례

□ 재영솔루텍

○품목 : 플라스틱 사출금형, IT 부품
○일본 기업을 M&A하여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조기에 습득,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의 자동차, IT 대기업에 납품

○ 진출배경 및 사업성과

-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로 성장한 재영솔루텍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금형산업 발전으로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수출시장의 60% 이상이 일본에 집중되어 신규거래선 확보가 불가피해짐

- 이에 따라 재영솔루텍은 2003년 일본 몰드베이스 및 금형부품 생산업체인 우치다社를 M&A하여 JYCO 설립, 설비 인수 및 종업원 고용승계를 통하여 금형 유지보수 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수행하게 됨

- 2007년에는 교세라 그룹의 중대형 금형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일본의 우수한 고부가가치 기술 습득함으로써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업체와 소니, 산요, 파나소닉 등 가전업체에 금형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성공요인

- 일본기업 M&A를 통한 최신기술 습득 및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부품 및 IT 부품으로 생산품목 확대하고 도요타, 소니 등 대기업에 금형을 직접 공급하게 됨

- 현지 금형 수요업체를 위한 완벽한 유지보수 체제 구축

□ (주)피에스텍

○품목 : 전기자동차용 급속·완속 충전 시스템, UV램프용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기존 거래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제휴협력 관계를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성과 확보

○ 주요경과

- 일본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미쓰비시社는 일본내 지역별 전력회사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큐슈전력은 후쿠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사업자를 모집

- 피에스텍은 기존 거래처인 일본의 A社로부터 공동참여 제의를 받고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시스템'의 메인 장치인 충전용전원을 개발, 납품 ('10.1월)

○ 사업성과

- 기존 납품처인 미쓰비시자동차 및 A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키타큐슈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스템'의 충전용 전원을 개발·납품

- 또한 대용량·고효율 UV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를 개발하여 일본 ECO UV인쇄기 업체에 공급

〈주요 성약내역〉

구분	바이어 명	성약액	계약시점
후쿠오카	급속충전기 A사 (비밀유지 계약)	15,710천엔	2008년 10월 ~
오사카	급속충전기 B사 (비밀유지 계약)	720천엔	2009년 6월 ~ (현재 개발진행중)
도 쿄	TOTSUKEN	1,063천엔	2009년 ~ (개발완료, 계약진행중)
합 계		16,953천엔	

○ 성공요인

- 지속적인 신기술·신제품 개발
  · 일본 경쟁사에 비하여 충전효율이 우수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하여 초기 도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음
  · 특히, 기술적으로 고용량의 충전기를 하나로 제작한 일본 경쟁사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모듈화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확보

- 일본 제휴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참여
  · 일본의 관련정책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존 거래처와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일본 전력회사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가 가능

- 현지 거점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대응
  ·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량의 주문부터 꾸준히 대응해 나감으로서 신뢰를 확보
  · 현지 거점인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일본의 시장환경 분석하여 현지에 적합한 제품개발이 가능

□ D사

○ 품목 : 초경량 세라믹 브레이크
○ 세계적 수준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및 1차 벤더와 Supply Chain 파트너링 관계 강화

○ 추진배경

- 동사는 자동차용 세라믹브레이크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
  · 기존 주철 디스크 대비 50%경량, 耐火性 2배(1300도)
  · 산화방지 코팅; 耐침식성, 내화학성 향상

- 시장조사활동을 통한 전략개발
  · 도요타는 주요벤더를 통한 부품 Sourcing이 일반적

- 일본 자동차 브레이크 시장점유율 1위는 A사 (도요타 1차벤더)이며 A사가 도요타 납품량의 46%를 차지
- 객관적인 데이터 및 성능증명을 통한 바이어의 신뢰확보가 관건
- KOTRA가 주관한 도요타본사 방문 조달상담회(Korea Autoparts Plaza in Toyota, '09. 9월)에 참가하여 도요타 자동차 조달부서 및 1차 벤더 A사와 직접 상담하게 됨

○ 사업성과

- 신소재로 만든 자동차용 초경량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도요타 자동차에 제안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음

- 도요타 자동차 1차벤더 A사와 비밀유지협약(NDA)를 체결 샘플테스트 등 장기공급을 협력 파트너링 관계 구축

○ 성공요인

-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철저한 사전시장조사 및 타겟기업 선정

-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 및 홍보

- 도요타 자동차 1차 벤더와 NDA 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글로벌 기업의 Supply Chain과의 파트너링 관계 강화

□ 더페이스샵

○ 품목 : 기능성 화장품
○ 일본내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일본 소매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TV 홈쇼핑 채널에 진출하여 매출 확대 성과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2005년 12월 일본 시장에 진출, 일본 가시와와 가와사키에 각각 1, 2호 매장을 설립한 이후 도쿄 마루이 백화점을 포함해 오사카, 요코하마 등에 10여개의 단독매장을 보유

※ 시세이도, 가네보, 고세 등 일본 토종 브랜드들의 점유비가 매우 높아 거대 자본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도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대담하고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짐

- 이후 일본 전역에 매장을 보유한 '도큐핸드', '플라자' 등 대형 유통체인에도 진출하여 '09년 9월 현재 180여개의 더페이스샵 세일즈존을 운용

- 글로벌 TV 홈쇼핑 채널 QVC의 자회사인 'QVC Japan'과 입점계약을 체결, '10년 1월 론칭 방송에서 2개 제품이 매진
  ※ 당일 판매고는 12억 4000만원을 기록

○ 성공요인

- 2005년에 일본에 진출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30~40대 여성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음

- TV 프로그램 등 현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취향이 까다로운 일본 잠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끔

□ NHN Japan

○품목 : 온라인 게임 등
○제품개발, 마케팅 등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일본 온라인 포털·게임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NHN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2000년 9월 한게임 Japan을 설립, 11월부터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일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시작
  ※ 당시 일본에서는 콘솔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 주류

- 현재 3,038만명의 회원과 14만7,000명의 최고 동시 접속자를 확보하면서 일본내 1위 게임 포털로 성장
  ※ 매출액 : ('02) 1.3억엔 → ('08) 115억 (연평균 50% 안팎의 고성장)

- 채널링 서비스를 통해 국산 게임의 현지 온라인게임 시장 진출 지원
  ※ 채널링 서비스 :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을 서비스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루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

- 인터넷 가이드 선정 '올해의 베스트 사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 3년 연속 1위 차지(2004~2006년)

○ 성공요인

- 마작, 파친고, 대부호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게임을 현지법인에서 직접 개발

- 전직원의 80% 이상을 일본 현지인으로 채용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구사

- 현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및 서비스로 차별화

□ KY Japan

○품목 : 가라오케 기기
○일본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초기 단계인 콘텐츠 개발부터 협력하는 등 공급기업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제작, 납품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일본의 가라오케 기기 시장은 End User의 요구가 까다로워 신규로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장벽이 큰 산업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시장임

- 2000년 전까지 한국기업 중에서 일본에 진출한 기업이 전무하며 과거 일부 일본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OEM을 시도하였으나 품질문제와 콘텐츠의 부재 등으로 사업을 포기

- 금영은 2000년대 초반 일본 가라오케 기기 BIG3 중 한 업체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다가, 2003년에 KY JAPAN을 설립하고 2006년 UGANAVI KING라는 곡목 검색기(무선 리모컨)를 출시
  ※ 노래방에서 온라인 게임 기능, 전국 순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UGA BATTLE 기능 등의 각종 신기능 탑재

- 현재 일본 가라오케 빅3(시장점유율 80%)에 해당하는 1개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제품 납품중
  ※ 2009년 매출 : 9,300천 불

○ 성공요인

- 일본과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여 공급기업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기기를 제작

- IT기술을 가라오케 기기에 접목(콘텐츠 저장능력을 높인 하드웨어, 무선리모컨 곡목검색기 등)

- 프로 뮤지션이 스튜디오에서 더빙 작업하는 여러 가지 마스터링 패턴을 분석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적의 음향조건을 선택 가능

□ (주)인피니트헬스케어

○품목 : 의료 디지털영상정보시스템(PACS)
○국제 공인된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대기업을 통한 다수의 유통채널을 구축, 시장점유율 조기 제고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2001년 (주)HIC를 설립하며 일본시장에 진출했으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열세로 인해 고전
  ※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보수적이라 기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처 개척이 어려움

- 이후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사명 변경((주)인피니트 테크놀러지, 2004), 현지 대리점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

- 현재 Toshiba, Nihon Kohden, Media 등 20개 전문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추진, 일본 PACS 시장 3%의 점유율 확보
  ※ 2009년도 일본시장에서의 매출규모는 4,800천 불

- 매출확대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동경여자 의과대학 의료센터, 일본 치과대학병원 등 20여개 병원으로부터 프로젝트 직접 수주 추진중

○ 성공요인

- 일본내 의료기기 분야 경쟁 대기업 보다 우수한 기술력
  ※ 미국 KLAS Reports 선정 PACS 소프트웨어 고객만족도 1위 기업 (2009년)

○PACS 시장전망
- 일본 : '08년 380억엔에서 '12년 440억엔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4% 기록 전망 (야노경제연구소, 2009)
- 세계 : '09년 31억불에서 '14년 45억불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8.75% 기록전망 (가트너, 2009)

□ 엔하이테크 주식회사

○품목 : LED 조명
○일본 유력 바이어와 제휴, 공동시장개척을 통하여 일본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로등 교체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투자유치를 통하여 공장증설에 필요한 자금 및 부지확보, 증가하는 수주에 대응할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됨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엔하이테크는 LED 조명의 일본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9년 KOTRA 도쿄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였으며, '산코덴키산업'이라는 도로조명 및 LED 조명 전문기업과 만나게 되었음

- 산코덴키는 도로조명 전문기업으로, LED 소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로등에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이 추진한 가로등 LED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임

- 엔하이테크는 산코덴키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아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6,003㎡ 규모의 LED패키징 및 LED조명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된 LED 제품은 산코덴키를 통하여 일본시장에 공급하기로 함

- 또한 엔하이테크는 산코덴키가 추진하고 있는 약 1백억엔 규모의 일본 LED조명 교체사업에 엔하이테크가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급속한 매출신장이 기대됨

○ 성공요인

- 도쿄 KBC의 BI센터에 입주하여 일본 현지의 영업거점을 확보하여 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도쿄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바이어의 납기 주문, 소량주문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일본 LED 조명 분야의 전문기업과 제휴하여 공동시장개척을 전개, 한국내 생산설비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일본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로등 교체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 (주)아라기술

○품목 : 인터넷 트래픽 관리 솔루션
○정보통신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 인력(자문위원)을 활용한 일본 정부, 대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트레픽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2005년까지 일본 현지 기업에게 제품을 납품하던 아라기술은 본격적인 일본진출을 위해 2006년 3월 일본지사 설립
  ※ '05.4월 KANAZAWA TV에 ARA-PPTM 납품, '05. 5월 NHN JAPAN에 JAGUAR 3000 납품

- NTT Com., 닛쇼일레트로닉스 등 3개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정부 주관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주하여 시장 신뢰성 제고
  ※ 총무성 주관 인터넷 트래픽 관리 프로젝트 수주 (2010.1, 1천만엔 규모)

- 일본의 네트워크 관리시장은 향후 빠른 속도가 예상되어 매출규모의 빠른 확대 전망
  ※ 2009년도 매출실적 : 1,000천 불

- 향후 NTT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사업 전개 예정

○ 성공요인

- 정보통신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 인력(자문위원)을 활용

- 본격 진출 이전 일본 현지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한 영업 노하우 습득

□ 이동 Japan

○ 품목 : 막걸리
○ 일본의 복잡한 주류시장 유통구조를 따르지 않고 직접 막걸리를 소비하는 소매점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주류업계로서는 특이하게 건강과 미용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

○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 김효섭 대표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열처리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동주조를 찾아가 일본 판권계약을 체결, 1995년 '이동 Japan'을 설립

- △ 업계 비주류 소비자인 여성층 공략 △ 기존 유통업계를 무시하고 소매점 직접 영업 △ TV 광고 등의 적극적 마케팅 등과 같은 영업전략을 통해 시장 확대

- 매일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1리터짜리 15,000병)의 막걸리를 일본내 공급
  ※ '매출액은 2005년 6억7000만엔에서 2008년 11억8000만엔으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 15.2%)

- 현재 일본산 막걸리를 제치고 현지시장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음

○ 성공요인

- 막걸리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점을 특히 여성층에게 홍보하는 한편, 유통채널이 아닌 직접 막걸리를 소비하는 소매점을 집중 공략해 붐 조성

2. 대일 투자진출 실패사례

□ 실패사례 1 : B사

○ 제품 : Firewall

○ 수출실적 : U$10,000(2009년)

- 과거 납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수입

○ 진출경과

- 동사는 2000년부터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 판매대리점 2001년 1개 → 2003년 10개

- 그러나 본사 경영진 및 현지 지점장의 잦은 교체, 성과중심의 무리한 현지 마케팅 등을 추진하다가 2007년 일본사업 철수

○ 실패요인

- 일본 Security 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부족
  · 시장진출 치밀한 시장조사에 기반한 진출전략 수립 보다는 막연히 일본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출을 시도한 문제

- 단기 성과중심의 밀어붙이기식 마케팅 현지 시장에서 신뢰 추락

- 일본 시장진출 전략의 일관성 부재
  · 본사 경영진과 현지거점 지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일본진출 전략의 안정감 부재

□ 실패사례 2 : N사

○ 주요경과

- N社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조명간판용 형광등 지지구"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

- 일본에서 광고용지지구를 생산·판매하는 D社와 2년간 독점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본 D社는 일본 국내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

- N社는 일본에서 "조명간판용 형광등 지지구"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의 진입시기를 놓침

○ 실패요인

- N社는 일본 시장진입을 목표로 D社와 일본 전역에서의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중 일본의 다른 업체와 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 또 계약불이행시 이에 대한 구체적 손해배상 문제를 적시하지 않아 피해를 당함

□ 실패사례 3 : S사

○ 국내 중소기업인 S社는 압축포장용기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하는 한편,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A社로부터 국내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음

- 양사는 동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일본측 협력 파트너인 J社가 자기 명의로 일본특허청에 출원하는데 동의

○ 이후 일본에서 동 제품 판매와 관련한 이권 때문에 일본에서 의장권을 획득한 J社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S社 제품의 일본 수출이 무산됨으로써 도산 위기에 처함

○ 실패요인

- S社는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면서도 일본 내에서의 지재권 확보에 소홀

- 일본에서 권리를 가진 J社와 일본 수출과 관련한 지재권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된 시장으로 고려하였던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도산 위기를 맞음

V. 부록

1. 대일 투자 지원기관

〈국내 지원기관〉

기관명	지원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KOTRA	- 해외투자 관련정보 제공 - 국내외 해외투자 절차 및 법률 상담 -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및 조사단 파견	02-3460-7114	www.kotra.or.kr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 금융지원 - 해외투자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02-3779-6114	www.koreaexim.go.kr
한국수출보험공사	-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 합작파트너 신용조사	1588-3884	www.keic.or.kr
지식경제부	- 해외투자 지원정책 수립 - 애로사항 조사 분석, 대책 수립	1577-0900	www.mke.go.kr
기획재정부	- 해외투자관련 협정 및 협력관계 구축 - 해외투자신고 수리, 사후관리 법·규정 제정	02-2150-2114	www.mosf.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투자 상담 및 자금지원	02-769-6700	www.sbc.or.kr
한국은행	-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 및 허가 - 해외간접투자신고 수리	02-759-4114	www.bok.or.kr
외국환은행	- 해외직접투자사업신고 수리, 사후관리	각 은행 지점	-

〈일본 내 지원기관〉

기관명	지원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부	-외국계기업이 일본에서 사업 전개 시 자금 융자	tel) 03-3244-1770 fax) 03-3245-1938	www.dbj.go.jp
내각부 대일직접투자 촉진대책실	-대일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 설치, 운영	tel) 03-3581-8950 fax) 03-3581-4772	www.investment-japan.go.jp
내각부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 대책실	-수입 및 대일투자관련 정부규제 등에 대한 고충 처리	tel) 03-3581-0384 fax) 03-3581-9897	www5.cao.go.jp/access/japan/oto_main_j.html
JETRO 대일투자과	-대일투자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JBSC)를 설치하여 외국기업 지원	tel) 03-3582-5571 fax) 03-3505-1990	www.investjapan.org
법무성 입국관리국		03-3580-4111	www.moj.go.jp/NYUKAN/index.html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도쿄)	-전화나 방문을 통한 문의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로도 대응	03-3213-8523~7	-

2. 지역별 진출유망 품목

구분	지역명	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송용 기계/기구	군마현	금형 설계 제작과 금속 가공 등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집적됨. 현의 제조품 출하액중 30%를 차지
	토야마현	기술력 높은 제조 회사가 많이 입주
	기후현	기후현의 산업은 자동차, 항공우주 관련 부재산업이 견인
	아이치현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와 관련 산업의 집적지
	아이치현 나고야시	자동차, 파인세라믹스, 항공기 부품 등의 산업이 집적하는 제조업 중심지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다양한 수송용 기기 관련(자동차, 선박, 항공우주, 생산, 가공, 혁신 기술 등) 메카
	카나가와현	닛산 본사 이전, 크라이슬러 테크센터 입주 등 집적이 진행
	토치기현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관련 기업이 집적
	후쿠시마현	자동차 엔지, 자동차 부품, 항공기용 제트엔진 부품 등 폭넓은 업종이 집적
	미야기현	토카이지방, 큐슈지방에 이어, 미야기현은 제 3위의 자동차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
	이와테현	자동차 조립 공장과 많은 자동차 관련 산업 기업,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집적
	아오모리현	차세대형 자동차의 개발, 생산거점으로 최적
	홋카이도	제조산업의 집적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키타현	전자장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과 극동 아시아의 관문인 아키타항이 매력적이다.
	야마가타현	고품질, 고정밀도의 저변이 넓은 기술이 집적. 동일본에서 손꼽히는 제조기술 기반을 형성
	후쿠오카현	연간 100만대를 넘는 거대 생산거점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진행 중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완성차 주력 공장이 인근에 다수 입주. 최근에는 전장품 R&D, 엔지니어링, 설계 등의 업태도 진출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키타큐슈 및 그 주변은 자동차 산업의 거대 집적지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
	쿠마모토현	큐슈의 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업이 집적. 유일한 혼다 이륜차 공장으로 세계적 공장으로 성장 기대
	카고시마현	산학관 연계 플레이
	에히메현	대규모 기초 소재형 기업(펄프, 비철 금속, 화학, 고성능 섬유)이 입주하는 공업 현
	오카야마현	자동차 제조, 농업 기계, 조선업 분야의 높은 집적을 활용한 초정밀 생산 기술
	오키나와현	대규모 지진이 ZERO인 오키나와에 입주 가속화
	시가현 나가하마시	안전벨트, 머플러, 내장품, 디젤 엔진 등의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집적
	후쿠이현	지역 산업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첨단 기술 산업(자동차, 전자 부품, 장치)에 응용

구분	지역명	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송용 기계/기구	시마네현	기초 소재형 제조업의 집적이 특징이며, 최근 정보 통신 기계, 전자 부품, 일반 기계 등 가공 조립형의 비중도 높음
	오이타현	다이하츠 큐슈와 도요타, 닛산 등의 잇따른 설비투자로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집적이 가속화
	히로시마현	다양한 제조산업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한 RT기술의 연구, 도입이 활발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마츠다와 다수의 하청업체가 집적하여 아시아 시장에 대한 최적의 진입 환경을 제공
전자 부품·장치	이시카와현	정보 서비스 산업이 집적, 아이오 데이터 기기와 PFU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배출
	기후현	기후현의 산업은 자동차, 항공우주 관련 부재산업이 견인
	미에현	액정을 비롯한 FPD 산업의 세계적인 집적이 목표
	아이치현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산업·관련 산업의 집적지
	아이치현 나고야시	자동차, 파인세라믹스, 항공기 부품 등의 산업이 집적하는 제조업 중심지
	시즈오카현	광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의 개발과 산업 응용을 추진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세계적 기업과 기술 개발형의 중소·벤처기업·연구기관이 입주하여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 등을 창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세계적인 전자기기, 반도체 재료, 광학 기계 등 IT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야마나시현	기계전자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나가노현	정밀 가공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조산업 기반기술 관련 기업이 집적
	니가타현	금속제품, 전기·기계, 일반 기계 등 각종 제조업이 집적
	미야기현	미야기현 전자 부품, 전자 기계 제조, 최첨단 기술을 포함한 고도 전자기계산업의 진흥에 주력
	홋카이도	서플라이어의 입지, 신산업 전개가 기대되는 분야
	아오모리현	차세대형 자동차의 개발·생산 거점으로 최적
	아키타현	전자장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과 극동 아시아의 관문인 아키타항이 매력적
	토야마현	이노베이션과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IT관련 제조업이 집적
	후쿠오카현	세계 반도체의 약 5%를 생산하는 실리콘 아일랜드 '큐슈'의 두뇌 거점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큐슈의 반도체 관련 산업의 집적을 배경으로 시스템 LSI 설계 개발 거점이 집적
	쿠마모토현	실리콘 아일랜드의 세미컨 포레스트 쿠마모토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카고시마현	미래 전망이 밝은 뛰어난 기술이 집적
	토쿠시마현	세계 유수의 LED 기업과 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교육기관이 존재
	나라현	전자 부품 관련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집적
	오키나와현	대규모 지진이 ZERO인 오키나와에 입주 가속화

구분	지역명	내용
전자 부품·장치	오사카부 사카이시	화학 금속 제품 제조업 등(출하액 약 427억 엔)이 다수 존재
	오사카부 오사카시	마츠시타 전공, 미츠비시 중공업 등의 대기업, 높은 기술 개발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두텁게 집적
	효고현	제조산업 기반기술의 집적 거점이며 슬림형 패널 제조 관련 기업의 집적이 진행 중
	돗토리현	서일본에서 손꼽히는 전자·장치, 정보 통신 계기 관련 사업소의 집적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마츠다와 다수의 하청업체가 집적하여 아시아 시장에 대한 최적의 진입 환경을 제공
ICT(정보 통신 기술)	이시카와현	정보 서비스 산업이 집적. 아이오 데이터 기기와 PFU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배출
	기후현	(재)소프트피아 재팬 지역은 IT, 컨텐츠 비즈니스의 일대 집적지가 되고 있다
	아이치현	항공우주산업의 일대 집적지
	카나가와현	요코스카 리서치파크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집적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세계적인 전자기기, 반도체 재료, 광학 기계 등의 IT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소와 공장이 일찍부터 집적하여 일대 거점을 형성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광학 관련 산업의 일대 집적지로서 광학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형 기업이 집적
	미야기현 센다이시	센다이시 핀란드 건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건강복지의 IT, 서비스업이 집적
	홋카이도 삿포로시	[IT]'삿포로 밸리'에서 세계로 정보 발신 [바이오]차고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
	나가노현	정밀 가공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조산업 기반기술 관련 기업이 집적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마츠다와 다수의 하청업체가 집적하여 아시아 시장에 대한 최적의 진입 환경을 제공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큐슈의 반도체 관련 산업의 집적을 배경으로 시스템 LSI 설계 개발 거점이 집적
	나가사키현	우수한 인재의 보고인 나가사키현에서 매력적인 사무실 전개를 제안
	에히메현	대규모 기초 소재형 기업(펄프, 비철금속, 화학, 고성능 섬유)이 입주하는 공업 현
	오사카부 사카이시	화학 금속 제품 제조업 등(출하액 약 427억엔)이 다수 존재
	후쿠이현	지역 산업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첨단 기술산업(자동차, 전자부품, 장치)에 응용
	교토부	첨단 기술을 가진 컨텐츠 소프트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이 집적
	시마네현	기초 소재형 제조업이 집적하여 정보통신기계, 전자부품, 일반 기계 등의 비중이 높다

구분	지역명	내용
정밀 생산 기술 (로봇기술·광학·정밀기기 등)	효고현	제조산업 기반기술의 집적 거점이며 슬림형 패널 제조 관련 기업의 집적이 진행 중
	아카야마현	자동차 제조, 농업 기계, 조선업 분야의 높은 집적을 활용한 초정밀 생산 기술
	히로시마현	다양한 '제조산업'의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한 RT기술의 연구·도입이 활발
	쿠마모토현	실리콘 아일랜드의 세미컨 포레스트 쿠마모토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오사카부 오사카시	마츠시타 전공, 미츠비시 중공업 등의 대기업, 높은 기술 개발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두텁게 집적
	아이치현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지
	아이치현 나고야시	자동차, 파인세라믹스, 항공기 부품 등의 산업이 집적하는 제조업 중심지
	시즈오카현	광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의 개발과 산업 응용을 추진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세계적 기업과 기술 개발형의 중소·벤처기업·연구기관이 입주하여,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 등을 창출
	야마나시현	기계전자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광학기술, 정밀 가공과 첨단 소재 등 연구 개발형 기업이 집적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광학 관련 산업의 집적지로서 광학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형 기업이 집적
	미야기현	전자 부품, 전자 기계 제조, 최첨단 기술을 포함한 고도 전자기계 산업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
반도체	아오모리현	차세대형 자동차의 개발·생산 거점으로 최적
	니가타현	금속제품, 전기·기계, 일반 기계 등 각종 제조업이 집적
	토야마현	이노베이션과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IT관련 제조업이 집적
	미에현	반도체 관련 기업 45개사 47거점이 집적. 반도체 관련 산업의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기계전자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세계적인 전자기기, 반도체 재료, 광학기기 등의 IT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광학 관련 산업의 일대 집적지로서 광학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형 기업이 집적
	후쿠시마현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장치 등의 관련 기업이 집적
	미야기현	전자 부품, 전자 기계 제조, 최첨단 기술을 포함한 고도 전자기계산업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반인 MEMS분야에서 토호쿠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홋카이도	제조산업의 입주와 신사업 전개 등이 기대되는 분야
	후쿠오카현	세계 반도체의 약 5%를 생산하는 실리콘 아일랜드 '큐슈'의 두뇌 거점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큐슈의 반도체 관련 산업의 집적을 배경으로 시스템 LSI 설계 개발 거점이 집적
	쿠마모토현	실리콘 아일랜드의 세미컨 포레스트 쿠마모토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구분	지역명	내용
반도체	오이타현	도시바, 소니, 일본 TI를 비롯한 세계 최첨단의 기술 개발·제조를 수행하는 대기업이 집적
	도쿠시마현	세계 유수의 LED기업과 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교육기관이 존재
	오키나와현	대규모 지진이 ZERO인 오키나와에 입주 가속화
	오사카부 사카이시	화학, 금속제품 제조업 등(출하액 약 427억엔)이 다수 존재
	교토부	첨단 기술을 가진 컨텐츠 소프트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이 집적
	시마네현	기초 소재형 제조업이 집적하여, 정보 통신 기계, 전자 부품, 일반 기계 등의 비중이 높다
바이오	야마나시현	의료기기 제조회사 관련 산업이 집적
	토야마현	의약품 외 용기, 인쇄 등 주변 산업도 집적하여 약업 도시 토야마를 형성
	아이치현	국립장수의료센터를 비롯한 특색 있는 기관, 대학, 기업이 집적
	시즈오카현	식품, 의료품을 통한 스트레스, 생활 습관병의 극복과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
	카나가와현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바이오 벤처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집적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바이오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우량 기업 집적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명과학 도시 요코하마'의 추진
	치바현	국제적 연구개발 거점인 카즈사 등에 바이오, 의료, 복지, 건강 서비스 관련 기업이 집적
	사이타마현	의약품 출하액 전국 2위. 연구 개발력 있는 의료용 기계기구 제조회사가 의료 기술 향상에 공헌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생명과학 관련 산업의 연구 개발 거점. 마케팅 거점으로 제조업이 집적
	홋카이도	향후 풍부한 대학 사업 소재(Seeds)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
	홋카이도 삿포로시	[IT] '삿포로 밸리'에서 세계로 정보 발신 [바이오] 차고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
	아오모리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복합적 에너지 개발, 공급 거점
	후쿠오카현	바이오 관련 기업, 대학 및 공적 시험 연구기관이 집적하여 국내 유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쿠마모토현	세계 최고 연구 수준인 생명과학 분야(유전자 변형 마우스 생산 기술)
	카고시마현	전국 2위의 농업 생산량
	에히메현 사이죠시	식품가공 유통 콤비나트 구상의 핵심인 식품 관련 산업의 유치
	오사카부	키타 오사카에서 세계로! 세계 NO.1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전
	시가현 나가하마시	나가하마 바이오 대학에 인접하여 나가하마 사이언스 파크를 정비, 공동 연구에 최적.
	효고현 고베시	포트 아일랜드(제 2기)에 첨단 의료 기술을 집결

구분	지역명	내용
바이오	히로시마현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산업' 기술이 축적되어 첨단의료 복지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이 활발
의료·건강·복지	야마나시현	의료기기 제조회사, 관련 산업이 집적
	토야마현	의약품 외 용기, 인쇄 등 주변 산업도 집적하여 약업 도시 토야마를 형성
	기후현	기후현은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 미쿼린의 별 3개 평가를 받은 히다타카야마, 일본 3대 명천인 게로온천, 나가라가와의 가마우지 물고기 잡이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자랑
	미에현	현내 8개 대학, 3개 고등전문학교, 의료·건강·복지 분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민이 연계
	아이치현	국립 장수의료센터를 비롯한 특색 있는 기관·대학·기업이 집적
	시즈오카현	건강 장수 세계 1위를 목표로 의료에서 웰니스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개발을 추진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식품, 의약품, 화성산업이 집적, 푸드사이언스 비즈니스의 연구가 왕성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명과학 도시 요코하마'의 추진
	사이타마현	의약품 출하액 전국 2위. 연구개발력 있는 의료용 기계기구 제조회사가 의료기술 향상에 공헌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생명과학 관련 산업의 연구 개발 거점, 마케팅 거점으로 제조업이 집적
	후쿠시마현	의공 연계를 통한 '우츠쿠시마 차세대 의료산업 집적 프로젝트'를 추진
	홋카이도	향후 풍부한 대학 사업 소재(Seeds)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
	아키타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조회사가 입주하여 산학관 제휴가 활발
	히로시마현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산업' 기술이 축적되어 첨단의료 복지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이 활발
	쿠마모토현	세계 최고 연구 수준인 생명과학 분야(유전자 변형 마우스 생산 기술)
	에히메현	기초 소재형 대기업(펄프, 비철 금속, 화학, 고성능 섬유)이 입주한 공업 현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일본의 스웨덴형 복지 산업 거점으로 사업 전개 중
	에히메현 사이죠시	식품가공 유통 콤비나트 구상의 핵심인 식품 관련 산업의 유치
	시가현 나가하마시	나가하마 바이오 대학에 인접하여 나가하마 사이언스 파크를 정비, 공동 연구에 최적
	후쿠이현	지역 산업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첨단 기술산업(자동차, 전자부품, 장치)에 응용
	효고현 고베시	포트 아일랜드(제2기)에 첨단 의료기술을 집결한 '고베 의료 산업 도시 구상'을 추진
생명과학	후쿠오카현	바이오 관련 기업, 대학 및 공적시험연구기관이 집적하여 국내 유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쿠마모토현	세계 최고 연구 수준인 생명과학 분야(유전자 변형 마우스 생산 기술)
	카고시마현	전국 2위의 농업 생산 현

구분	지역명	내용
생명과학	에히메현 사이죠시	식품가공 유통 콤비나트 구상의 핵심인 식품 관련 산업의 유치
	효고현 고베시	포트 아일랜드(제2기)에 첨단 의료 기술을 집결한 '고베 의료 산업 도시 구상'을 추진
	오사카부	키타 오사카에서 세계로. 세계 NO.1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전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식품, 의약품, 화성산업이 집적. 푸드 사이언스 비즈니스의 연구가 왕성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명과학 도시 요코하마'의 추진
	사이타마현	의약품 제제 출하액 전국 2위. 연구 개발력 있는 의료용 기계기구 제조회사가 의료기술 향상에 공헌
	야마나시현	의료기기 제조회사, 관련 산업이 집적
	시가현 나가하마시	나가하마 바이오 대학에 인접하여 나가하마 사이언스 파크를 정비, 공동 연구에 최적
기타	효고현	한신만 연안 지역은 칸사이 최고 수준인 2시간 배송권. 경제 규모와 비교적 낮은 땅값 등이 매력적
	오카야마현	자동차 제조, 농업 기계, 조선업 분야의 높은 집적을 활용한 초정밀 생산 기술
	히로시마현	잘 발달된 중공업과 첨단분야산업, 그리고 이에 따른 환경 관련 산업의 집적으로 신산업 창출이 활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한·중 등 동아시아에 가깝고, 19조 엔의 공업 출하액 및 9조 엔의 무역액을 가진 물류 수요
	나라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현내 호텔 신규 진출의 좋은 기회
	시즈오카현	건강 장수 세계 1위를 목표로 의료에서 웰니스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개발을 진행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세계적 기업과 기술 개발형의 중소·벤처기업·연구기관이 입주하여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 등을 창출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첨단 환경 기술을 가진 환경 관련 기업이 집적
	치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공급기지로서 물로 관련 산업이 집적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은 수도인 도쿄와 가까운 점 등 지리적인 우위성, 인프라 정비가 진행 중이다
	아키타현	고도의 제련 기술을 환경·재활용에 응용하여 환경과 조화된 산업 조성을 추진
	홋카이도 삿포로시	국내 최대 규모의 콜센터 집적지. 풍부한 노동 인구로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
	도쿄도	전국 대비 10%가 넘는 약 69만개의 사업소가 있고, 외자계 기업 본사의 약 70%가 집적
	기후현	기후현은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 미쉐린의 별 3개 평가를 받은 히다타카야마, 일본 3대 명천인 게로온천 나가라가와의 가마우지 물고기 잡이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자랑
	교토부	'교토 의정서'가 탄생한 곳으로 기업, 대학, 행정이 하나가 되어 환경·에너지 절약 대책에 주력
	교토부 교토시	전통산업에서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산업이 집적

3. 일본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 일본정책은행의 융자제도

○ 외국기업 및 외자계기업은 일본에서의 사업시 토지,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취득자금, 연구개발자금, M&A자금에 대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의 금융제도('대일액세스촉진')을 이용할 수 있음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

대상사업	금리	융자비율
(1) 대일액세스촉진사업 외국기업 및 외자비율이 1/3을 넘는 기업이 일본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일투자에 따른 기술·노하우 등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 신규 산업 창출, 고용증가 등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는 사업(비설비자금 포함)	정책금리 I	50% (비설비자금을 포함할 경우는 40%)
이 중, 해당 기업이 일본에 하는 첫 본격적 투자 (단, 비설비자금 제외)	정책금리 II	50%
(2) 대일투자촉진기반시설 정비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쿨'의 정비로,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 ① 외자계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자녀가 상당수 증가 또는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른 시설 정비로서, 대일투자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 ② 학교교육법 제83조의 각종 학교에 속할 것 ③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외국어로 진행할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정책금리 I	40%
문의처 :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부 Tel : +81-3-3244-1770 Fax : +81-3-3245-1948 http://www.dbj.go.jp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원서비스

○ 외국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 **(대일투자촉진그룹 초청 프로그램)** 대일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는 일본시찰 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 시찰투어, 비즈니스 파트너 후보와의 상담 등으로 구성
  ※ 참가자의 여비 및 체재비는 JETRO가 부담

- **(인더스트리얼 투어)** 일본 각지의 산업집적지 등 투자유망지역을 소개하는 시찰 프로그램

- **(세미나, 심포지엄, 상담회)** JETRO 해외사무소에서는 대일투자 관련 테마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정보제공 외에 개별 컨설팅을 실시

- **(대일투자정보 사이트 운영)** 'Investing in Japan'(www.invest -japan.org)를 통해 대일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지원센터(IBSC)

- **(정보제공・컨설팅)** 시장・산업 정보나 일본기업과의 연계,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절차 등의 정보제공, 사업계획, 법무・노무관계 등 컨설팅을 실시

- **(일본 정부・지자체와의 네트워킹)** 각 부처 및 자자체와의 네트워킹 및 법률, 각종 기준, 규제 등의 행정정보 취득 지원

- **(사무공간 제공)**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등지에서 일본내 사업전개를 추진하는 외국기업에게 개별사무실을 제공

문의처 : 일본무역진흥기구 대일투자부 대일투자과
Tel : +81-3-3582-5571 Fax : +81-3-3505-1990
email : invest-japan@jetro.go.jp

□ 지자체

○ 각 지자체가 정하는 각종조례나 제도에 의해 우대세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보조금, 토지·건물 취득, 운전자금이나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대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각 지자체의 상세한 투자환경정보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웹사이트 “Investing in Japan" 내의 「지역별 투자환경가이드」 및 각 지자체의 기업입지관련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지역별 투자환경가이드 : http://www.jetro.go.jp/invest/region

2010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年 1000大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1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1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1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1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2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세계 발주처 및 발주임박 프로젝트 (최신판)	2010.2
10-012	중동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FDI Them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작성자

◈ 도쿄KBC 김경미 과장
◈ 일본사업단 홍승민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발행인 ▌조 환 익
편집인 ▌오 성 근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0년 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우 137-749)
전 화 ▌02) 3460-7114(대표)
사이트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